

이라크전에 대한 분석과 평가

高 盛 允

(한국국방연구원 군사전략실장)

- 서 언
- 위협 인식의 변화
- 이라크 전쟁의 성격
- 미국의 전쟁 계획과 군사작전
- 전쟁의 평가: 패인과 승인
- 결 언

1. 서 언

이라크전은 미국의 일방적 선전포고로 시작된 21세기의 첫 전쟁이라는 데 의미가 크며 전쟁 명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전쟁이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전쟁을 감행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미국의 '패권' 확대와 일방주의를 경계하던 강대국들과 국제사회는 연대하여 미국의 발목을 잡고자 하였으나 강력한 미국의 힘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

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명분이 취약하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라는 전쟁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미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 세력이 없을 정도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막강한 국력 때문이었다. 더욱이 전쟁이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종료됨으로써 세계는 다시 미국의 위력에 경악하게 되었다.

초 단기전으로 막을 내린 이라크전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의 시작과 경과, 끝, 전후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의문들인 것이다. 전쟁은 종료되었으나 이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라크의 민주화와 중동의 미래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라크의 미군은 현재 게릴라들과 전쟁 중이다”라는 존 아비자이드 중부군사령관의 보고처럼 미국은 이라크 무장세력의 저항을 게릴라 전으로 공식 언급할 만큼 이라크의 민주화 추진 등 재건계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전투가 종료되었다고 선포한지 두 달이 더 지났지만, 거의 매일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반미 무장저항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7월 16일에도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C-130 수송기가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은 바트당원과 사담 후세인 축성과 제거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도록 전후 관리 계획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할 지도 모를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이라크전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중동의 미래를 논하는 일은 지나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료나마 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글에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위협 인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이라크 전쟁의 다양한 성격, 공방 양자의 입장과 전략, 전쟁의 패인과 승인, 교훈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위협 인식의 변화

냉전 이후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안보환경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과거 냉전기와는 다른 형태의 안보적 위협으로 인하여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폭 넓게 공유하고 있다. 조직적 테러 및 국제적 범죄와 같은 초 국가적 안보위협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종교, 민족, 영토, 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9·11 테러는 미국의 전통적 안보 인식이나 전략개념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야기할 만큼 새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미국의 리더십 및 잠재적 전쟁수행 능력, 그리고 다인종 사회인 미합중국의 애국적 단합을 국제사회에 재삼 확인시켜 준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9·11 테러가 미국 사회에 미친 안보영향, 더 좁게 보서는 위협 인식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 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9·11 테러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며 이제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지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우방국은 테러리스트(초 국가적 테러리스트 및 지원세력, 테러국을 포괄하는 광의적 의미)들의 공격에 대하여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테러 집단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군사적 위협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초 국가적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조직적인 테러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으로 폭넓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고전적인 안보관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대응하고자 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테러집단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시민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할 짐을 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부시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위협의 근원을 미리 제압하는 적극적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둘째, 9·11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적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군사대비 태세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 대비한 기존 군사조직에 대한 개혁 및 개편을 단행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조직 수준에서도 국내 안보를 담당하게 될 독립 행정부처의 신설 및 관련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90년대 걸프전과 발칸반도에서의 전쟁, 2001년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전이나 2003년의 이라크전은 전선이 확정되어 있고 적의 위치가 거의 확인되어 있어 미국은 전장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자국의 탁월한 전쟁수행 능력을 전과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로 무장된 테러 집단의 공격과 같은 우발적 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미국으로서도 많은 군사적 한계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시 행정부는 21세기의 다양한 군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군사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된 것이다. 이것이 9·11 테러가 부시 행정부에 남겨준 고민이며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업이기도 하다.

셋째,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적대적인 테러리스트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국들로부터 자국 및 우방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서두르게 한 측면이 있다. 테러를 계기로 핵전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기존 행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행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내 다수의 군사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안보 전문가들은 미래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적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행정책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복원이 미국의 국익이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중동 지역과 연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 운용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중동

지역의 민주화 없이는 테러위협이 확산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 지역의 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 세계전략 운용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 듯하다. 과거 전략적으로 변방으로 인식되던 이 지역에 미국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인식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9·11 테러에 의한 새로운 위협 인식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큰 저항 없이 국방비를 과감히 증액하도록 힘을 받도록 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향후 5년 간 지속적인 국방비의 증액을 통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전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자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으려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성공적인 대 테러전과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2003년에 3천7백9십억 달러를, 그리고 2007년에는 총 4천5백10억 달러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예산계획을 밝힌 바 있다.¹⁾

특히 부시 행정부는 향후 2007년까지 첨단무기 및 기타 장비 개발에 4천8십억 달러를 투입할 야심적인 전력증강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잠재적 경쟁국에 비하여 더욱 격차를 벌려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도의 예산안이 2002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3.7%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4.5%나 늘어날 정도로 재정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이러한 위협 인식 하에서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바탕을 둔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전략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1) 고성윤, “9·11 테러의 군사적 영향과 부시 행정부의 행정책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 880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4.16).

국력 신장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미국이 지향하는 정의와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유리한 전략환경의 구축 및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미국 주도의 안정적인 세계질서가 유지되도록 세계전략을 운용해 나가고자 한다.²⁾

또한, 필요하다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공격도 감행해야 한다는 위협 대비 인식을 미국의 군사전략은 담고 있기도 하다.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이러한 미국의 의식을 설명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하에 건설된 진지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 등 재래식 전력으로 제압하기에 어려운 군사적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대량살상무기 공격시에는 즉각적으로 보복하며, 우발적 군사 상황에서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상정하고 있는 핵공격 상황은 핵 및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은 물론 비 핵공격을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표적의 제압이나 혹은 기습적인 군사력 전개에 대응하는 등 매우 포괄적이다.

3. 이라크 전쟁의 성격

이라크전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극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금번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그 정당성의 근거로 미국의 자위권과, UN의 결의를 들고 있다. 먼저 미국에 있어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잠재적으

2) 미국의 세계전략 기조는 미국방성의 연례보고서인 2002년 판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로 미국에 위협이 되며, 특히 테러리스트와 연계될 경우 수천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자위권 주장은 UN헌장 상의 자위권(51조)에는 위배된다. UN헌장 상의 자위권의 내용은 '현재의 침해'에 대해 'UN이 대응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자위권이 UN헌장 상의 자위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UN헌장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국제관습법 상의 자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전통적인 국제관습법 상의 자위권은 침해의 우려가 급박한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 견해도 최근에 접어들면서, 예방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기에(국제사법재판소, Nicaragua Case),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자위권과 함께 UN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차 걸프전 당시의 UN 안보리 결의 678, 687에서 가장 최근인 결의 1441에 이르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한 UN의 노력을 완수한다는 또 하나의 명분을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허용한 안보리 결의 678, 687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당시의 결의는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의 결의는 무력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 객관적 규범만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직 국제법은 강제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주체인 각 국가는 그 나라의 '주권'에 근거한 법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심판할 권위 있는 주체는 아직 없다. 일부는 UN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UN도 아직은 그러한 법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미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는 행동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행동을 국제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라고 만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주요한 전쟁은 국제법 자체를 바꿔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이라크전의 향방에 따라 새로운 국제법 또는 국제관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혹자는 '이런게 무슨 법이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규범이 전혀 존재하지 않던 국제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국제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이 국제법에 대한 '법적 확신'을 얻는 그 날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둘러싼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이다.

둘째, 이라크전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시험한 전쟁이며 속도, 융통성, 합동성을 갖춘 미 군사력이 적의 전략적 중심(전쟁 지도부와 수도)을 장악하여 전쟁을 종료시킨 초 단기전의 모델이다. 이처럼 이라크전은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벌어진 전쟁으로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감행된 전쟁이며 선제공격을 모델로 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계 안보환경은 과거 냉전기와는 다른 형태의 안보적 위협으로 인하여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9·11 테러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지리적 위치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님이 확인이 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전통적인 봉쇄와 억제의 개념에서 억제와 격퇴라는 보다 공격적 방향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최선의 방어는 효과적 공격이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신군사전략 개념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예방과 함께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편, 2003년의 이라크전은 전국토를 장악하지도 않고 피아간 대규모 인명의 살상도 없이 적 전쟁지도부의 수괴를 제거하고 권력의 중심지인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단기간에 종료할 수 있었다. 미국은 향후 수행할 전쟁에서 지상군의 수적 우위 없이도 대규모 공습 및 첨단장비를 통한 전략적·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전쟁을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나갈 가

능성이 높다.

현재의 군사적 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만이 유일하게 속도, 융통성, 합동성을 통합한 군사작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전장인식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의 발전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의 획득과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⁴IR의 지속적 발전으로 전장의 가시화와 정보의 공유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Network-Centric Warfare)개념도 현실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은 첨단기술에 의한 정밀타격체계의 발전으로 사정거리의 증가, 파괴력 및 정확도의 향상, 복합재료 등 특수구조 재료에 의한 경량화 등으로 무기체계효과의 극대화도 구현하고 있다. 모두가 군사혁신의 노력에 힘입은 성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군은 향후 압도적 우위의 능력과 높은 사기를 지니고 있어 군사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라크전은 부분적으로 석유자원의 장악을 위한 경제전쟁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부시행정부 및 보수주의의 시각은 미국이 석유자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쟁을 감행하였다는 주장을 ‘음모론자’들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여 왔다. 미 행정부는 ‘음모론자’들이 이번 전쟁을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한 전쟁이며, 이라크의 석유 자원을 탈취하고자 감행한 명분이 없는 전쟁으로 비하하고 있다고 불편해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차원에서 대 테러 정책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은 우선적 고려 사안이며,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감행된 전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적 성향은 부시 행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정책적 원칙을 보여주는 노선이기도 하다.

한편, 전쟁의 성격을 중동의 석유 자원과 경제적 이권 관련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과 아랍권 국가, 반전주의자들

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도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석유생산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수입 의존도는 점증하여 대 중동 의존도는 경제영역을 넘어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라크 전쟁은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전략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일견 이해되는 바가 있다. 미국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라크를 친미정권으로 대체하는 일, 석유 매각대금의 유로화 결재의 차단 및 석유가격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미국의 전쟁 계획과³⁾ 군사작전

(1) 전쟁계획에 대한 논쟁

미국의 전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개전 전에 일부 언론에 계획의 일부가 공개된 적도 있으나 내용은 극히 일반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전쟁 계획은 ‘블랙 박스(black box)’인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한된 인원만이 전쟁계획의 수립 및 보완, 계획의 집행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며 계획이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전쟁계획 자체가 전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예측 및 분석들이 점증하

3) 본 절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nthony H. Cordesman, “The Instant Lessons of the Iraq War,” CSIS working paper draft (May 14, 2004)를 참조할 것.

고 있으며, ‘전력 변환’과 관련한 미 육군 수뇌부와 럼스펠드 장관 간의 갈등설도 심심찮게 나돌기도 한다. 일부 언론들은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부대의 규모 및 전력의 비율, 공격개시일, 작전계획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언론에 드러난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그의 참모들은 프랭크스 중부사령관을 위시한 군의 계획 수립자들에게 지상군의 투입규모를 줄이고 공습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군사작전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2년 8월 말경 국방장관은 지상군의 규모를 5만에서 8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장관이 지상군의 투입 상한선을 15만 정도의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군사작전의 경우 대량공습의 기간도 지상군 투입 이전에 공습을 20일에서 10일, 5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3일간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상군 투입은 2일간의 제한적인 공습과 거의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⁴⁾ 전쟁은 최초의 계획과는 달리 미 보병 4사단과 제3기계화사단이 터키에 전개되지도 않고 101공수사단이 목표 지역에 투하되기도 전에 시작된 형상이었다.

최초의 공습은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 첩보부대가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이라크 고위 전쟁지도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 파악하였다고 보고함에 따라 미 전쟁지도부는 서둘러 이라크의 전쟁지도체계를 마비시키고자 공습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계획이 초기에 변경된 것은 전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최초 2~3일간의 대규모 공습과 3천 여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계획이 변경된 것도 그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라크전은 이라크 고위 전쟁지도부가 사용하는 건물을

4) Rowland Scarborough, “Decisive Force Now Measured by Speed,” *Washington Times*, May 7, 2003, p. 1.

포함한 제한된 목표를 6척의 전함에서 발진한 토마호크미사일 공격에 의하여 개시가 되었으며, 초기의 작전은 이라크 방공망, 지대지 미사일기지, 포병진지 등 제한된 목표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작전에 투입된 주력 항공기는 F-117 나이크호크와 F-15E 이글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작전은 지상군의 충분한 전개 없이 진행되었으며, 지상군의 투입 이전에 당연히 있어야할 대규모 공습이 사전에 집행되지 않아 전쟁 계획상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부 언론은 초기 72시간 안에 2,500개의 토마호크와 폭탄이 투하되어 이러한 비난은 신빙성이 없다고 군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이라크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방비가 허약한 측·후방 병참지원부대를 기습하여 전과를 올림으로써 미·영 동맹군을 잠시 당혹스럽게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상 작전부대의 규모에 대한 논란도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 군 측은 기 작성된 1990년 계획과 우발계획(Two Major Regional Contingency)에 따라 이라크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미군의 지상군 전력을 대략 5~7개 중무장 사단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를 중시하고,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중무장 사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전통적인 전쟁계획에 따르면, 지상군은 후방지역의 안전과 지상군의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숫자가 요구되며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충분한 지원 부대 규모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은 미합참의 전쟁계획인 TPFDL(Time-Phases Force Deployment List)의 기본개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럽스펠드 장관은 TPFDL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TPFDL에 따른 부대의 규모 및 전력의 구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전에 대해서도 초기 군에서 계획한 기획안에 대하여 전력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중전력과 신속

기동 전력에 의존하여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전에서는 실제 1개 기계화 보병사단, 해병 제1신속기동군, 미군 사단 전력의 50% 정도인 영국군 1개 사단, 비교적 경무장 상태의 101 공중강습 사단, 기타 미, 영, 호주, 폴란드의 부가적인 경무장 부대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전쟁계획 상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의견도 많다. 전쟁계획이란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결정되는 정책 선택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럼스펠드 장관은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논쟁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전쟁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프랭크스 장군, 마이어 의장, 군 인사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계획은 이들 관계관들이 동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결심함으로써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회견장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자유국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나 이해 집단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마이어스 의장도 럼스펠드 장관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쟁계획은 프랭크스와 야전지휘관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된 계획으로 관계자들 간의 논쟁을 거쳐 선택된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지상군사령관 맥키넨(David D. McKiernan) 장군도 전투가 종료된 후인 4월 23일 이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맥키넨 장군은 전쟁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전쟁기간 중에 계획상의 문제로 인하여 군사작전이 압박을 받아 지연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전쟁지도부와 일부 군 수뇌부 사이에서의 갈등설과 달리 주요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쟁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갈등설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또한 이라크 전쟁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있었겠지만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야전군 지휘부나 럼스펠드 장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 간에 심각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견은 있었으나 사전 관계자들 간에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전쟁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갈등은 럼스펠드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력 변환’의 개념을 근간으로 전력 비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럼스펠드 장관과 그의 측근들은 전쟁에 투입될 병력 비율을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럼스펠드 장관의 인식이 전통적 개념을 중시하는 일부 군 수뇌의 인식과 대립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 변환’의 개념을 강조하는 럼스펠드 장관의 독트린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개념이나,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내용은 첫째, 전장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빠르고 가벼운 전력의 운용, 둘째, 전투에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의사결정의 보장, 셋째, 지해공 전력 및 해병대 전력의 합동성 강화, 넷째, 동시에 수 백 여개의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공군의 활용, 다섯째, 전장에서 스마트 폭탄의 사용, 통신체계 활용, 정보수집 등에서 최첨단 기술의 적극적 활용, 여섯째, 특수부대 작전의 확대, 일곱째, 네트워크 중심 작전(Network Centric Warfare)의 적용 등이다.⁵⁾ 이러한 점들은 미 합참의 「Joint Vision 2020」에서 강조한 신속 기동, 정밀성, 핵심 대상에 집중되는 군수지원체제의 가동, 전방위 방어 등의 개념이나 이라크 전쟁계획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럼스펠드 독트린에 대하여 일부 군 고위 인사들은 군 경험이 취약한 럼스펠드 장관과 측근들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채,

5) Brad Knickerbocker, “War Boost Rumsfeld’s Vision of an Agile Military,” *Christian Science Monitor*, April 11, 2003; David A. Fulghum, “Fast Forward,” *Aviation Week*, April 28, 2003.

‘전력 변환’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불만이 튀어나오기도 하였다. 이들 입장에 따르면 장관과 측근들이 지상군 역할과 기능을 제한시키고 적의 중무장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공중전력과 우주전력, 정밀유도무기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적지 않는 수의 미국군 장교들은 이를 두고 단순히 민군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쟁계획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시각이다. 사실 그들은 전통적인 인식에 토대를 둔 채 결정되는 전력 비율은 수정이 필요하며 이라크전과 관련해서도 초기의 계획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2) 군사작전의 특징

미·영 동맹군의 군사작전은 여러 면에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작전은 교과서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다. 동맹군은 최첨단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어 있으며, 전장 장악이 지해공 3차원의 합동작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전쟁원칙에 따라 고전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을 알고, 적을 찾고, 적의 약점을 발견하여 적시에 이를 이용하여 승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동맹군은 사전에 적의 기도와 능력을 충분히 살폈으며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확보된 위치 정보는 토마호크와 정밀표적 공격폭탄에 입력이 되어 적이 취약한 시점에 정확하게 타격을 가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하여 초기의 제한적 폭격으로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군에게 시간을 주었으나, 적이 굴복하지 않자 대규모 공습에 의한 적극적인 군사작전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도 하였다. 전쟁을 미국의 의지대로 통제하였던 것이다.

둘째, 작전단계별로 전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대량공습이란 물량전으로 전략적 목표를 파괴하여 전장을 장악하고, 다음 단계에서 특수부대와 지상군 부대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았다. 특수부대는 유정, 접근로, 대량살상무기의 의혹시설 장악 및 주요 타격 목표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수 양측에 결정적인 전략 거점을 사전에 확보하여 지상군 부대의 진출을 보장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셋째, 최첨단의 무기체계와 장비를 활용하여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하였다. 네트워크중심작전(무기체계운영체제)으로 무기체계 간의 벽을 제거하였으며 재래식 폭탄을 정밀유도무기로 개량하여 정확도를 확대하였다. 적외선 레이더와 영상레이더로 장착된 무인기는 이제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전투를 벌일 만큼 이제 무기체계, 운용체제는 과히 눈부시게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고전적 전쟁 원칙과 ‘하나의 표적당 한 개의 폭탄(one target one bomb)’ 개념 간의 혁명적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삼아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을 조기에 장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단기전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3) 이라크의 대응 전략

1) 개전전 미국의 압박에 대한 기본 시각

이라크 지도부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인 목표를 숨긴 채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9·11 테러와 연계시키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자국민을 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자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호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라크의 미국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라크는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근거도 없이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고도의 선전전을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0월 3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의 무장해제를 촉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세계를 무시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라크를 겨냥한 대 테러 확전을 선언한 데 대하여,⁶⁾ 이라크는 미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라크를 핍박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동년 10월 2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대 이라크 군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심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⁷⁾ 미 국무부 또한 이라크 대통령궁에 대한 『유엔무기사찰단』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한 대 이라크 압박은 미국측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무력으로 이라크를 굴복시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려는 강대국의 횡포로 봐야한다고 이라크는 반발하였다.

이라크는 미국이나 영국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대량살상무기를 재개발할 의도가 없으며, “이라크가 빠르면 1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블레어 영국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하였다. 이라크는 영국이 2002년 9월 24일 공개한 문건에서 언급된 ‘의혹 장소’에 대하여 영국의 전문가들의 조사와 『유엔무기사찰단』의 자유로운 사찰을 보장하겠다고 대응하고 나선 바도 있다. 이라크측의 시각에 따르면 영국측이 공개한 ‘증거 문건’이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자신들의 침략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장되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⁸⁾

6)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wl/20021004/yonhap/yo20021>.

7) 중앙일보 2002.10.4, 10쪽 ‘美의회, 부시에 무력 사용권 부여’ 참조.

둘째, 이라크는 미국 행정부가 시오니즘의 보호와 확산을 위하여 본의를 감춘 채 이라크를 압박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패권을 장악하고자 이라크를 대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라크의 시각은 정부의 공식자료나 이라크내의 전문가 혹은 친 아랍계열의 인사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이라크 지도부의 경우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하여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 군의 비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내정에 간섭하고 군사적인 위협은 물론 공격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군이 '영웅적인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무고한 아이들과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의 국익 보호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시오니즘을 위한 것이며, 자국의 이익에 따라 힘을 앞세워 행동을 하는 미국의 행위는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는 시각인 것이다. 이러한 시오니즘 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정책적 선택이며, 세계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라크측의 불만이기도 하다.⁹⁾

셋째, 미국은 중동 유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역내는 물론 세계차원에서 경제를 장악하고자 이라크를 공격·파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¹⁰⁾ 이러한 주장은 일견 '음모론자'들의 시각과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

8) 이집트·시리아를 방문중인 나지 사브리 이라크 외무장관의 『이집트관영중동통신』과의 회견 내용에서 인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http://hanireporter.co.kr/section-007000000>.

9) 앞의 자료. <http://www.iraqi-mission.org/president-letter-GA-09-19-02.htm> 참조.

10) 2002년 9월 19일 UN 총회에서 대독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연설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http://www.iraqi-mission.org/president-letter-GA-09-19-02.htm>의 5쪽을 참조.

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동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미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경제가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지역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전 세계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후세인과 같이 행동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독재자가 원유 공급이나 원유의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를 장악할 경우 세계경제는 그의 의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이라크는 미국의 적대적 행동이 이라크가 강대해지거나 중동에서 중심적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라크의 시각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상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중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자국의 이익이나 중동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아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미 성향이 강한 사담 후세인이 주변국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맹주로 부상하거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군사 블록화를 추구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역내 안정성도 크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한 때 사담 후세인 정권과 바트당을 수십 년 동안이나 지원하던 미국과 영국이 일차 걸프전에 이어 이제는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고, 이라크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태도라고 것이 반미 감정을 지닌 이라크인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2) 외교적 대응 전략

개전 전 이라크는 전방위 외교를 펼쳐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라크가 추구했던 외교의 중심축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대서방·유엔 외교 축이다. 당시 서방의 대체적 여론은 미국의 대 테러전에 동의를 하면서도 대 테러전을 구실로 테러와 무관한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라크는 이러한 분위기를 심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이라크는 알 카에다 조직과 무관하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유엔무기사찰단』의 조기 사찰 재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라크가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라크의 지속적인 생화학무기 개발, 생화학무기 군사적 사용계획 수립, 아프리카로부터의 핵무기 제조용 원료용 물질 및 기술 도입 시도, 생화학무기 운반수단인 사거리 650km의 알-후세인 미사일의 불법적 확보, 사거리 1,0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 무기 사찰 관련 장비·서류 은닉 노하우 습득 등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이라크측은 일축하였다.¹¹⁾ 사실상 전쟁이 끝난 후 미·영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데 편하지 않는 입장이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라크의 대서방 외교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것으로 평할 수 있다. 영국민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는 겨우 28%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편이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행한 연설에서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며 최악의 해결책이므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주창하고 나섰다.¹²⁾ 프랑스의 이 같은 입장은 블레어 영국 총리의 발언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았다. 미·영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 테러전에 대한 국제사

11) BBC News, "Blair Outlines Iraq Evidence" (30 Sept. 2002).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2277352.stm에서 인용;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US Dept. of State,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Assessment of The British Government" (5 Oct. 2002). <http://usinf.state.gov/regional/near/iraq/text/dossierfd.htm>에서 인용.

12) 인터넷한겨레, "프랑스, 일방적 이라크 공격 반대 재확인"(2002.9.25).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07100005>에서 인용.

회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전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라크로서는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전통적인 미국의 맹방인 독일도 유엔이 이라크 공격을 결의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러시아도 미국의 독자적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축하거나 자국의 원하는 쪽으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라크의 대서방 외교 측은 이라크측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편이었다. 대서방 외교측이 미국의 노선과 궤를 달리할 경우 미국의 단독적인 대 이라크 군사행동은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수 서방국가들의 입장은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전쟁회피 노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유엔은 미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의 사찰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라크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둘째, 대아랍권 외교 측이다. 이라크가 1990년 8월 2일 인접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촉발된 걸프전쟁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당시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침공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이의가 없었으며, 아랍권 국가들도 대이라크 제재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후세인이 노리는 아랍 對 서방, 혹은 이슬람 세계 對 기독교 세계의 대결구도를 미국측은 일축할 수 있었으며 다국적군에 의한 성공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랐다. 이라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알 카에다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증거 또한 미약하였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혹이 있으나 이라크는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유엔무기사찰단』의 자유로운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랍권 국가들은 여론에 반하여 형제국인 이

라크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작전에 동참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라크는 미국의 위협을 이라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세계 전체를 향한 위협이라고 선전하는 등 반미 정서를 역내 국가들에게 확산시켜 나갔다. 1980년대 이라크와의 긴 전쟁을 겪은 바 있는 이란 역시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¹³⁾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에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담 후세인 이후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었다. 친미 바그다드 정권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대체할 경우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변화의 압력이 불어닥칠 것이며, 이라크는 쿠르드, 수니, 시아파 국가로 분열되어 역내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랍권 국가들은 전쟁이 몰고 올 변화의 위협을 인식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차원에서도 미국과 이라크의 무력 충돌을 반대하고 나섰던 면이 있다.¹⁴⁾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전 이전 이라크의 대서방 외교 축과 대 아랍권 외교 축은 미국의 전쟁 의지를 꺾지는 못했어도 이라크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작전에 참여하기를 회피하였으며 유엔 또한 이라크와의 사찰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독단적 군사행동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미국내의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쳐 부시행정부에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연초까지만 해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여론이 대세를 얻었으나 이라크가 외교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국면이 바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가 좋지 않

13) BBC News, "Iraq Woos Iran in Anti-US Drive" (30 Sept. 2002). http://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2287601.stm에서 인용.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면서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유엔의 확인이 있을 경우 유엔 결의에 따를 것임을 천명하였다.

14) BBC News, "Why Arab Fear Iraq Attack" (2002.9.30). http://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2239227.stm에서 인용.

은 점, 서방 및 중동 국가와의 협력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점,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수반될 인명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전쟁 불가론이 서서히 확산되어 부시 행정부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3) 군사적 대응

전쟁이 발발 할 경우 전쟁의 양상은 1991년의 걸프전 양상과 다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선 군사작전의 목표가 다른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91년의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의 군사적 목표는 단기간에 적의 주력을 패퇴시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라크 군 전체를 궤멸시키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지도 않았다. 지역에서의 군사적 세력 균형을 고려하여 이라크가 일정 수준의 무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리더십을 보존시켜 이라크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란과의 세력 균형을 유지토록 관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 이라크 군사작전을 통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자 계획하였다. 따라서 대규모의 지상군이 이라크 영토 안에서 장기간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세한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종결을 위해서는 지상전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미 중부사령관인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24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군을 B-52 폭격기와 조종석에 앉은 군인들로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¹⁵⁾ 고 지적했다.¹⁵⁾ 또한 1991년의 걸프전이나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비하여 군사작전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인명피해도 클 수 있어 부시 행정부로서도 부담이 작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었으며 이라크는 이를 십분 군사

15) 머니투데이, “미국 대이라크 반전론도 만만찮아” <http://www.moneytoday.co.kr/news.html>(2002.9.30)에서 인용.

적·심리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라크군의 작전 목표는 연합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고, 피아간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시가전을 선택하여 연합군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라크는 전투의 참혹함을 외부에 알리고 국제 반전여론을 확대하여 상황의 반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군은 동맹군이 민간인 피해나 유정, 유적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작전을 구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크군은 민간인 지역에 방어시설을 구축하거나 군 주둔지역, 연합군의 공습목표 등에 민간인을 배치하여 연합군에 부담을 주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라크군은 방송매체와 언론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심리전도 폈다. 동맹군이 유정, 발전소, 유적지 등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작전에 반영한 것이다.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방공전력이 열악한 이라크군은 도시, 기간산업시설, 유적지, 유정 등의 외곽에 포진하여 방어하다가 밀릴 경우 시가지로 퇴각하여 근접전을 벌인다는 작전을 구상했던 것이다. 개전 후 국경지역에서의 격전이 거의 없었던 점, 움카스르항과 바스라, 나자프, 나시리아, 티크리트 등 도시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연합군과 격전을 벌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에서의 초기 패배를 교훈 삼아 사막에서의 접전을 회피하고 적을 내륙으로 끌어들여 근접전이나 시가전으로 맞서고, 정규전과 함께 비정규전 및 비대칭전을 혼합하여 전쟁을 지연시키고 미군의 피해를 강요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제공권을 장악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이상 이라크군은 피해를 줄이면서 첨단화 무기로 무장한 적의 역량을 제한하는 데 작전의 초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2002년 8월 2일자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이러한 이라크의 작전 개념을 소상히 소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적의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키고자 수도 바그다드 등 주요 거점 도시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다.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에서 시가전을 치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개전이 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월남전 이후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짐쳐졌다. 더욱이 이라크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아 주요 거점에 이들을 대규모로 집결시킬 가능성도 있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가 미국과의 전쟁을 성전(Holy War) 혹은 정의로운 전쟁(Just War)¹⁶⁾의 차원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경우, ‘인간폭탄’으로 무장된 ‘자살특공대’에 의한 이라크군의 전후방 배합작전도 또 다른 위협 변수였다. 아무튼 개전이 된다면 전쟁의 한 축을 주도하여야 할 이라크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미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라크의 군사적 대응 계획은 미·영 동맹군과의 접전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 주었다.

5. 전쟁의 평가: 패인과 승인

(1) 이라크의 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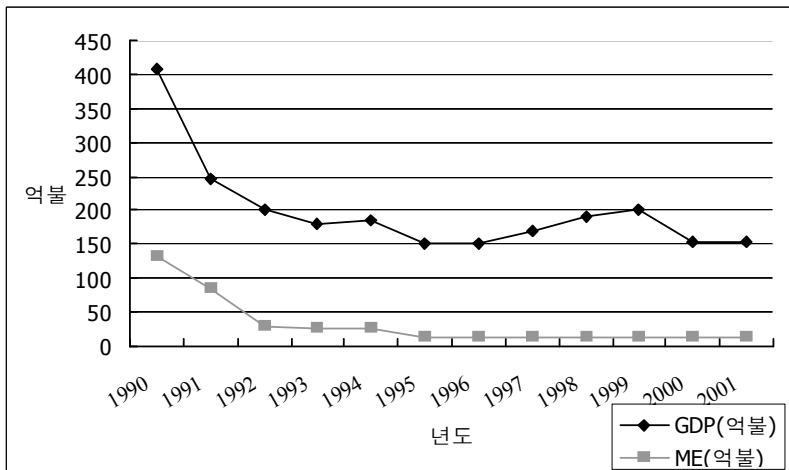
40여만 병력의 전투력을 가진 이라크가 동맹군의 공격에 대하여 제대

16) Kenneth L. Vaux, *Ethics And The Gulf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2), pp. 64-86. 본 자료에서 Vaux는 이슬람 율법은 ‘harb(war; 전쟁)’와 ‘jihad(holy struggle; 聖戰)’을 엄격히 구분한다고 기술하였다. 율법에 따르면 부족 간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 아니나, 이교도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는 전쟁은 ‘jihad’, 즉 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로 된 정규전을 한차례도 치르지도 못한 가운데 조기에 붕괴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라크군의 열악한 무기체계와 훈련 부족에 따른 전력의 절대적 열세로 인하여 조기에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는 1차 걸프전 이후 가혹한 경제 제재를 장기간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피폐해 졌으며,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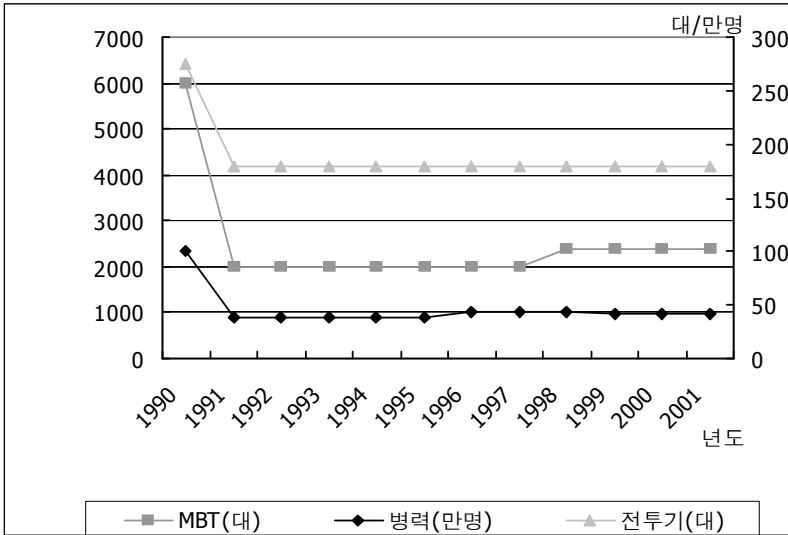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 이전에 400억불 이상 유지하던 GDP가 200억불 이하로 급격히 추락하고 150억불에 육박하던 군사비도 10억 달러대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라크 국민의 일상생활은 더욱 황폐하게 되었으며 무기 밀매가 있었다고 하나 군사력 또한 전후 파괴된 상황에서 복원되지 않았다. 이라크군의 또 다른 취약점은 대부분의 무기체계 수명이 15년~25년이 넘으며 군 조직은 전투보다

<그림 1> 이라크 연도별 GDP 및 군사력 변동 추이¹⁷⁾



17) 고성윤, “이라크전과 한반도 안보”에서 재인용. 본 자료는 2003년 6월 12일 해외파견 무관을 대상으로 한 강의 자료의 일부임.

<그림 2> 이라크군 병력, 전차, 전투기 변동 추이¹⁸⁾



쿠데타 제압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된 점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비하여 절대적인 열세인 상태에서 이라크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이라크 전쟁 지휘부의 무능력함과 모호하게 보일 정도의 군사작전이 이라크의 조기 패전을 앞당기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도 왜 사담 후세인이 동맹군의 바그다드 진입을 저지하도록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다. 덕분에 동맹군은 효과적인 전략적·전술적 기습을 감행할 수 있었으며,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라크군은 방어자가 누릴 수 있는 전략적·전술적 측면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살리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동맹군은 이라크군이 조직적인

18) 전게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을 공습을 통하여 제한하고 자국 영토 안에서 방어부대가 적극적 활용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조차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맞도록 이라크의 전쟁지도부는 무모하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였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이라크 전쟁 지도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첫째, 후세인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발목을 잡아 독자적으로 전쟁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는 친 이라크 세력으로 불릴만한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이라크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국제사회도 반전과 평화운동을 전개하여 미국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후세인은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오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프랑스가 후세인의 정세 판단을 혼란스럽게 유도한 장본인이라는 시각도 불거져 나온 것이다.

둘째, 북부 전선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터키가 자국 영토 안에서 동맹군 지상군과 공군이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한 판단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북부 전선은 물론 전체 전선에서의 방어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는 터키가 미 지상군의 자국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확신은 가질 수 없어 상당 부분의 전력을 북부 지역에 주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터키의 거부로 미국은 터키 영토 안에 지상군 기지를 구축할 수 없어 북부 전선에서 바그다드를 향하여 협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나, 공중강습 부대를 투입하여 이라크군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 놓을 수 있었다. 특히 미 공군은 터키내의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공권을 상실하고 방공망이 무력화된 북부지역 이라크군은 전선을 형성하거나 기동을 하는 데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 방

19) Anthony H. Cordesman, The "instant Lessons" of the Iraq War: Main Report, (Washington D.C: CSIS, May 14, 2003), pp. 18-19.

어작전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셋째, 개전시까지 적지 않은 규모의 이라크군은 전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 부대막사나 기지에 주둔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라크의 전쟁 지도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격을 해 올 것이라는 데 확고한 판단이 안 섰던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48시간의 최후통첩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은 확실한 군사적 대비를 서두르지 않는 측면이 여기저기 나타났기 때문이다.

넷째, 이라크는 동맹군의 공중전력의 파괴력 및 기동속도, 자국군의 기동과 지휘통신체계를 제한 할 수 있는 동맹군의 능력 등 동맹군의 전반적인 합동작전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은 점도 패인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 동맹군은 개전 48시간 안에 전략적·전술적 목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여 이라크가 조직적으로 방어작전을 펼 수 없도록 전세를 장악하게 되었다.

다섯째, 이라크군은 비재래식 전력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신뢰를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전쟁의 지연 및 기만 전략이 통하고 동맹군에 피해를 입혀 전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측면이 있었다. 이라크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비정규전 및 비대칭전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오관을 한 것이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난 후세인의 행태와 대응을 보면 이러한 면들이 확인된다. 가장 큰 오류는 부정확한 정세판단이며 이는 사담 후세인이 정확한 정보관단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전제정권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후세인에게 자국군의 강·약점, 전세 전반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여섯째, 이라크군은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유엔무기사찰단의 사찰에 대비하여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고 감추는 데 진력하느라, 실제 개전이 되었을 때 이들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여 조기에 궤멸되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미·영 동맹군의 승인

동맹군이 단기간에 이라크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수하게 많으나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요인을 통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섬세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에 의해서 미국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단기전의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치밀한 사전배치전략(preposition strategy)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프랭크스 중부사령관 주도 하에 대 이라크 전쟁계획을 개전 이전 수십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하였다. 전개부대의 편성 비율, 작전단계별 세부내용, 공격시점, 이라크 정보에 대한 판단 등 전 분야에 걸쳐 격의 없는 토론과 논쟁도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군 수뇌부와 럼스펠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기사도 흘러나왔다.

미국은 2002년 9월부터 대대적인 부대 전개를 시작하였다. 9월 한 달 동안에 3만의 병력과 각종 장비와 군수품을 이라크 주변지역에 배치하였으며, 2003년 2월 초에는 병력 전개 수준을 15만에 이르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중부사령부는 특수부대를 이라크 영토로 잠입시켜 표적 획득, 방어강도, 군의 사기, 민심 동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대 이라크 심리전도 펼쳐 나갔다. 개전이 임박하면서 이라크 접경국가들의 지원 거부와 소극적 협조로 지상군 작전에 차질이 예상되자 중부사령부는 전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하여 작전 전반에 큰 문제가 안 되도록 대응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터키로부터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게 되자 항모전단을 홍해로 이동하여 이라크에 대한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거리를 유지한다거나 공중강습부대를 북부지역 및 서부지역에 투입하여 전선을 유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쿠웨이트와 페르시아만의 주요 전진기지를 강화하여 작전을 무리없이 하도록 상황 변화에 대비한 것도 미국의 철저한 준비의 일면이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미·영 동맹군은 쿠웨이트내 지상군 훈련지역에서

실전에 가까운 모의훈련을 수차례 치렀으며 해·공군 역시 가상전쟁 연습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대규모 작전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둘째, 속도와 융통성을 보장한 작전 개념, 전력의 통합적 효과를 가능하게 한 완벽한 수준의 지해공 합동작전은 개전 초기에 이라크의 전쟁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decapitation strategy)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였으며, 단기간에 동맹군으로 하여금 전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도록 하였다. 전후 미군 스스로도 동맹군은 고도로 훈련된 지상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의 합동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작전 속도를 유지하고 결정적인 기동과 돌파가 가능하였으며, 정확하고 충격적인 타격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북부에서 작전하던 소수 특수부대원은 쿠르드 반군의 도움만으로 전차까지 보유한 이라크 여단을 공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항공전력을 언제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거의 완벽한 수준의 합동성에 힘입은 바 크다.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우수한 통신체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지상군 역시 전 작전기간에 걸쳐 강력한 공군의 정밀폭격을 지원 받아 효과적 인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합동성이 보장된 덕분이다.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미국군은 동원 가능한 지해공 모든 병력과 무기, 장비일체를 일시에 투입하여 이라크군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었다. 미국군의 압도적 항공우주전력과 입체적인 C³ISR 체계는 미국군의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보장해 준 자산들이기도 하다. 장거리 정밀 타격수단과 ‘스마트탄’ 등 첨단무기는 정확도를 바탕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라크의 심장부인 전쟁 지도부와 전략적 목표들을 겨냥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무력화 시켜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명확하고 단순한 군사작전의 목표를 전 장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표와도 부합하였다는 점 역시 전쟁의 승인으로 꼽을 만하다. 군사적 목표는 반테러전 차원에서 ‘적장’인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

다. 목표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다. 장병들은 전쟁의 당위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을 전세계 차원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이라크전 또한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감행한 군사작전의 성격으로 장병들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군이 설정한 군사적 목표는 테러조직 및 지원국의 분쇄, 이라크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목표와도 부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쟁지도부와 야전부대 지휘관의 인식상의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넷째, 미국이 개전 이전부터 이라크를 상대로 한 심리전과 선전전 또한 이라크군의 전의를 약화시키고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 심리전은 적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파, 확산하여 혼란과 분열을 유도하고 아군에게는 유리한 정보를 확산하여 사기 진작과 전의를 고조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전의 특성은 적의 무형전투력, 즉 전투의지를 무력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면 미군은 전단이나 대적방송 요원에 의한 방송 이외에 위성방송, 인터넷, 사이버전,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심리전과 선전전을 펼쳤다.

미국의 심리전과 이라크의 심리전을 비교했을 때의 공통적 특징은 전과를 과대선전하고 상대방의 전과발표 및 전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박, 부정하는 식의 심리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상호 공히 채래식 수단 및 위성방송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개전 전에 위성방송 및 언론 매체를 통하여 미국이 사용할 각종 첨단무기의 정확성 및 파괴력에 대하여 선전함으로써 이라크군과 지도부를 위협하고 충격을 주고자 하였다. 개전 초기에는 적의 투항 규모를 과장하거나 전과를 과장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의 사망설, 핵심 지도부에 우군이 있다는 선전, 전쟁지도부를 국민과 야전부대로부터 이간시키는 내용, 포로의 수, 희생자

규모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아무튼 개전 이전에 행한 첩단무기의 정확성 및 파괴력에 대한 미국의 선전전은 심리적으로 이라크의 전쟁 지도부나 야전 지휘관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여 전쟁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6. 결 언

이라크전이 남긴 몇 가지 교훈들은 아프간 전쟁의 교훈과 더불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전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향후 전쟁은 정규전과 함께 특수부대에 의한 비밀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은 영상과 신호 등 최첨단 정보자산이 전장지역을 24시간 감시하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이라크전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인간정보자산이 합동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도록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특수부대는 개전 이전에 주요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이라크 지도부의 동향 및 부대 주둔지 위치, 병력의 이동 현황, 국가전략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 미국은 전쟁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정예 델타포스 요원을 이라크 북부 및 인접 국가에 투입하였으며 공습이 개시되기 전인 3월 19일에는 움카르르 항구에서 영국의 SBS 요원들이 이라크군과 첫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규군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전에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둘째, 전장에서의 완벽한 의사소통과 합동성이 보장된 작전수행 능력이 미래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이라크전은 항공우주전력과 함께 입체적인 C⁴ISR 능력이 뒷받침됨으로써 단시간 안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전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동성이 보장된 작전수행이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번 이라크

전에서도 의사소통과 통신이 제대로 안되어 작전에 문제가 발생한 예는 수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부전선에서 항공기 오폭에 의하여 특수부대 요원과 지원세력인 쿠르드족 반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나, 나시리아 전투에서 제1해병기동군 병력과 유류를 지원하러 온 육군 지원부대 간에 접촉이 제대로 안되어 혼란이 야기된 것도 통신이 안 된 결과인 것이다. 나시리아 전투에서 해병기동군 예하 1개 대대가 통신두절로 인접부대 및 본부와 수 시간 동안이나 접촉이 안 된 적도 있었다.

셋째, 최상의 전투 수행은 일사 분란한 전쟁지도와 완벽한 작전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여 주었다. 전쟁 기간 중에 병참선이 위협받고 포로들이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전황이 위성방송망을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고, 광범위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지만 전쟁지도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쟁 지도부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군사전문가들이 전략과 작전의 오류를 공격했지만 전쟁지도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팀워크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전쟁지도부는 국민과 군의 신뢰를 얻었으며 사막에서 작전중인 야전부대는 높은 수준의 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전쟁 지도부는 야전 지휘부와 의 격의없는 논쟁과 토론 과정을 통하여 전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넷째, 이라크전은 미국 및 우방국,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조치와 함께 선제공격도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이다. 전쟁이 초단기전으로 3주 만에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자수도 사고사를 포함하여 149명일 정도로 극히 낮아 미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 압박 수단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

은 미국 군사력의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향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은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미국은 한반도에서도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확실한 증거 없이도 이라크 공격한 바 있는데, 그에 비하면 북한은 보다 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어 북한에 대하여 침예한 이권을 갖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에 손을 들어 줄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공갈'이나 기만전술,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 재배치를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통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적은 병력을 가지고서도 압도적인 첨단무기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전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군의 전방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신속히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해외주둔 병력의 축소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영향은 바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7,000명의 미군에게도 바로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 2003. 7. 12,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이라크전, 전력변환, 전쟁교훈, 군사전략, 사전배치

<ABSTRACT>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American
- Iraq War in 2003.

Ko, Sung-Youn

Although the international society was strongly against the war on Iraq, the U.S. alone made steps toward attacking Saddam Houssein-controlled Iraq. There were many alerts in the strong countries before the war, and there were also countless efforts to stop the U.S. from acting out war on Iraq. However, the efforts were not enough to have an effect on controlling the U.S. power. The end of the short Iraqi war has given us many lessons.

First, in the wars to come, special strategies through special forces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long with regular warfare.

Second, the accurateness of communication and joint operations will become a definite source of winning in the future-war.

Third, precise strategem and highly qualified leadership will optimize combat procedure during real-time war. The Bush administration has won the peoples' and military's confidence, and the troops on duty were able to maintain a high level of morale.

Fourth, the Iraqi war pointed out that to keep peace in the U.S, the allies, and in international society, preventive action and preemptive attack is needed at times.

Fifth, with high-tech gear and equipment, the U. S. could end the war quickly with minimized number of troops. This could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e front-line positioning and could lead to reduction of the U.

S. troops in foreign territories. This will also lead to a direct effect on the U. S. forces in Korea.

Sixth, as the Iraqi-war ended in a short time period with small casualties, we can foresee that the probability of the U. S. using military pressure o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may continue to rise.

Key Words : Iraqi war, force transformation, war lesson, military strategy, prepositioning

K C I